

지난 주 말씀 요약 (12 / 9)

제 목 : 잃은 양을 찾아라.

성경말씀 : 누가복음 15 : 1 ~ 10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을 시청각 자료로 삼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목자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셔서 “잃은 양을 찾아라.” 하시며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셨다. 시편 23에서 다윗도 자신을 양이라고 칭했다.

예수님의 양 중에 잃은 양은 누구일까? 잃은 양이라 할 때에 잃은 양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는가? 를 확실히 하면 된다. 어떤 교회가 그 잃은 양의 주인도 아니고 어떤 목사나 단체가 그 잃은 양의 주인도 아니다.

그 잃은 양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런 사례에는 결코 잃은 양이 아니다.

첫째, 더 잘되려고 어떤 교회를 떠날 때는 잃은 양이 아니다. 우리 신암교회와 담임목사의 목회 방향과 그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중심의 참 교회 순수한 신앙을 세워 나가며,
성도들의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도록 양육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더 잘하고 담임목사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좋은 목사가 있어서 그를 찾아 가는 성도가 있다면 이는 잃은 양이 아니다.

둘째, 믿음의 스타일이 달라서 떠날 때는 잃은 양이 아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취향과 스타일이 다르다. 정상적인 교회에도 교회마다 목사마다 특성이 다르다. 거기에 맞는 교회를 찾아 어떤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잃은 양이 아니다.

셋째, 예수님의 양이 아니어서 떠날 때는 잃은 양이 아니다.

관원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 얻기를 청한다.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을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감화시킬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를 붙잡지 않으셨다.(눅18:18, 마19:16, 막10:17)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많은 돈,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실 수 있었지만 그가 떠나도록 두셨다. 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담임목사나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있다. 주님이 맡기신 양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세상이나 다른 곳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잃은 양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잃은 양이 아니라면, 근심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 해서도 안 되며, 붙잡거나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잃은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세상 것 즉 돈 명예 권세 학식 쾌락 등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다.

둘째, 예수님을 믿다가 상처받고 주저앉은 사람들이다.

연약한 인생들이다.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인들에게 어떤 사유로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 주저앉아 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잃은 양이다.

셋째, 예수님을 믿다가 환란 풍파 불행한 일로 쉬는 사람들이다.

사람의 한 평생에는 누구든지 환란 풍파 질병과 사고 등 불행한 일도 따라 온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받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믿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차라리 믿지 말자, 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잃은 양이다.

넷째,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은 했지만 예수님을 우리 속죄와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를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 그렇기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망할 자로 정해진 줄 알고 멀리하라 하셨다.(디도서 3:10-11)

다섯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인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천하에 모든 인생들 중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엡1:3-4)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복락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아직 믿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 가족들을 비롯하여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이다. (요10:16). 그러므로 잃은 양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거나,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기뻐하심은 곧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하라는 뜻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면, 멸망 받을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 복락으로 인도한 것이며,(약5:19-20)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믿음의 옳은 데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단12:3)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 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교육목사 김용상 : 010-7400-5810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8 (새 찬송가 1, 2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로마서 12 장에서

○ 너희를 찌르는 자를 축복하라

●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 도리어 낮은데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하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 아 멘 -

찬 송 : 208 (새 찬송가 289)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로마서 12 : 14 ~ 21 신약 25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한 해가 가기 전에 축복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45 (새 찬송가 493)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2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김정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김철진 집사 (다음 백원덕 집사)

기 도 : 채현숙 집사 (다음 이해랑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임미이 집사 (다음 유정숙 집사)

기 도 : 강동원 권찰 (다음 고명순 권찰)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용상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낸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부 흥 사 경 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과 행복을 위해

2013년 신년 축복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 : 총회장 이 창 옥 목사님 (경기광명 성산교회 시무)

일자 : 2013. 1. 21. (월) ~ 24 (목) 오전까지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성 탄 절 준 비

24일 전야예배 : 1부 : 밤 7시 성탄 은총 감사예배

2부 : 축하 성경암송 찬양경연

25일 낮 예배 : 오전 11시 성탄 축복 감사예배

3. 금 요 기 도 회

12월 21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루디아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박원남 님.

현대 @

☺ 신현정 님 이시원 님

동부 @

지난 주 말씀 요약 (12 / 16)

제 목 : 한 해가 가기 전에 축복하라
성경말씀 : 로마서 12 : 14 ~ 21

2012년이 며칠 후면 마감을 한다.
불과 10여일 남짓한 날들, 어떻게 보내야 마무리를 잘할까?
이루고 싶은 크고 좋은 일들이 있어도 시간적으로나 또한 우리
능력으로 볼 때, 금년 내에는 이루지 못할 일들이기에 그런 일
은 일단 접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본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의
“축복하라”는 말씀이다.

첫째, 꾀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
“꾀박하는 자의 원어” 디오콘타스(δύσκοντας)는 진지하게 따
라다니며 계속적으로 꾀박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사노라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있고,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과 문제가 생겨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미움이 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도 있다. 그렇다고 갈등과 불편함이 있는 그대로 금년을 마무
리하고 말 것인가? 이는 주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연말연시를 마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축복을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진지하게 따라다니며 꾀박하는 자에게도
축복하라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20절) 하셨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며 친지들이며 이웃
들이며 직장 동료요 천국까지 함께할 사랑스런 교우들이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갈등이 좀 있었다 해도 그런 편치 못한
관계로 이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며
우리 자신이 마귀와 부패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을 해야 한다.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우리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까지도 믿음의 아량을 가지고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다.
부부간에도 서로 축복하자! 부모자녀 간에도 서로 축복하자!
이웃에게도 축복하고, 직장 동료에게도 축복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고, 원수에게도 축복을 하자!
상대가 받아 주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다 해도 내 쪽에서 먼저
축복하고, 상대는 나에게 계속 꾀박을 한다 해도 나는 축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근거가 된다.

둘째, 동고동락(同苦同樂)하라. (15절)
주위에서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시샘이나 질투를 하지 말고
내 일이 잘 된 것처럼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다.
주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처럼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며 위로해 주는 것이다.
이웃의 즐거움이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음도 좋은 일이며,
나의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해 줄 이웃이 있음도 복 된 일이다.

셋째, 교만하지 말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이 말씀의 뜻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 하라는 말씀이다. 잘난 척 하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온유 겸손하면 사람들 마음이 함께 한다.
3절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셨다.
각자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셨으며, (잠언16:18)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적으로 대한다.”고 하셨다. (벧전5:5.)

넷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7절)
상대가 악하게 나올 때 그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음모 술수를 부려야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승리는 곧 패배이다. 이미 성도로서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며 하늘의 상급을 잃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상대를 이기려면, (20~21절)
상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19절)
내가 선하게 잘 해주고 있는데도 상대는 계속 악하게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악하게 할 것인가? 아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위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원수를 갚을 것이니 주님께 원수 갚을 기회를 드리려라”
는 뜻이다. 그렇다. 주님께 기회를 드리면,
천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징벌을 하신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길여가야 할 길이다.

위와 같이 2012년의 남은 시간들을 보낸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들도 좋아할 것이며,
우리에게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복 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하자 !!
가까운데서 먼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모두에게 축복을 하자 !!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115 (새 찬송가 2, 11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로마서 12 장에서

○ 하늘에서 내려 온자 곧 인자 외에는

● 하늘에 올라 간 자가 없느니라.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이요

●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별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아 멘 -

찬 송 : 112 (새 찬송가 112)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요한복음 3 : 13 - 18 신약 14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13 (새 찬송가 108)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2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열

여, 노인숙 김정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백원덕 집사 (다음 박영수 집사)

기 도 : 이해랑 권사 (다음 이매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유정숙 집사 (다음 정명숙 집사)

기 도 : 고명순 권찰 (다음 오정순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 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부흥 사 경 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과 행복을 위해

2013년 신년 축복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 : 총회장 이 창 옥 목사님 (경기광명 성산교회 시무)

일자 : 2013. 1. 21. (월) ~ 24 (목) 오전까지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성탄절 준비

24일 전야예배 : 1부 : 밤 7시 성탄 은총 감사예배

2부 : 축하 성경암송 찬양경연

25일 낮 예배 : 오전 11시 성탄 축복 감사예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함께 예배드립니다.

3. 금 요 기 도 회

12월 28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에스더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신현정 님 이지원 님

동부 @

☺ 송양호 님 진신숙 님

금호 @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8. 11 (새 찬송가 6, 42)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로마서 12 장에서

○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 기록한바 저가 흠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함과 같으니라.

- 아 멘 -

찬 송 : 93 (새 찬송가 93)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고린도후서 9 : 6 ~ 12 신약 295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버릴 것과 취할 것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44 (새 찬송가 390)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1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열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박영수 집사 (다음 문정용 장로)

기 도 : 이매순 집사 (다음 오정순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사무엘상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사 회 : 정명숙 집사 (다음 이윤교 집사)

기 도 : 이옥심 권사 (다음 김정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상)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전 10시) 김정한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2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 교 회 소 식 *****

1. 송구영신예배

2012년을 잘 보내고, 2013년을 잘 맞이하기 위한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31일 밤 11시에서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2. 부흥 사 경 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잘됨과 행복을 위해

2013년 신년 축복사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 : 총회장 이 창 옥 목사님 (경기광명 성산교회 시무)

일자 : 2013. 1. 21. (월) ~ 24 (목) 오전까지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금 요 기 도 회

1월 4일 밤 8시, 금요기도회는

마리아 여전도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신현정 님 이지원 님

동부 @

☺ 송양호 님 진신숙 님

금호 @